

개회사

“안전한 원자력”과 ‘원전해체산업’ 육성 시급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오늘 ‘한일 원전 안전 및 해체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신 호사카 차장님,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아키오 타카하시 이사장님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골든 위크 연휴로 인해 부족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일포럼을 개최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일본원자력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일 양국 원자력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원자력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해체산업에 대한 양국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에너지를 도입한 지 한 세대 만에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전력 생산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주와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이들 지진을 통해 나타난 만큼 지진을 포함한 원



전의 안전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기술력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원전 해체 선도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일본 원자력산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안전한 원자력’과 신성장 동력으로서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양 국가 간 원자력 기술 동향에 대해 토론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경제산업성 자

원에너지청 신 호사가 차장님,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아키오 타카하시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주제 발표까지 도움을 주신 일본원자력산업협회 관계자분들과 바쁜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해체 관련 최신 현황 및 지식 공유”

다카하시 아키오(高橋明男)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사장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일본원자력산업협회는 약 40년에 걸쳐 한국원자력산업회와 정기적인 세미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원자력협회에서 공동 포럼을 개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강재열 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한국대표단 여러분께도 참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호사가 차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일본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양국에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경제성,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은 원자력 안전성 향상과 국민의 수용성 촉진을 위하여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원자력산업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규제기준을 충족하여 재가동에 이른 발전소는 아직 6기에 불과합니다. 원자력의 재생을 위하여 우리 원자력 관계자가 함께 원자력 발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안전